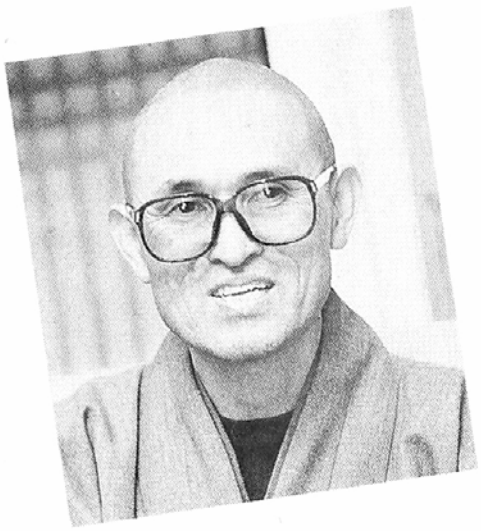
출가·열반절 기념 제1회 현대불교 문화강좌 요지

"부처님 닮은 삶 살아간다면 훌륭한 출가"

위대한 출가·깨달음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출가절날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출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의 출가를 생각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 시대의 스님들이 왜 출가를 했는지를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건 상관없이 올해의 출가절이 지나갔습니다. 출가란 무엇입니까. 집을 떠나 수행을 하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빛나고 가장 훌륭한 출가를 한 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출가. 그것은 곧 자기버림에서 시작된 자기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가의 의미를 이러쿵 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일생 그 자체가 위대한 출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훌륭한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의 인연들을 다 버리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삶이 주는 진정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 목적, 즉 그 위대한 원력은 그 생애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 원대한 발원과 빛나는 실천의지가 곧 사홍서원(四弘誓願)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번뇌를 다 끊겠다는,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그 원력과 실천 과정이 점철된 삶이야 말로 가장 위대한 출가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홍서원은 발원이자 실천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곧 성불의 큰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뭔가를 이루려는 원력과 실천의 행이 있어 아름답고 숭고한 것임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출가자의 목적이 뚜렷하듯 출가정신은 철저히 큰 원력을 성취하려는 굳은 의지로 일관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행이 바른 신행생활입니다. 믿고 행하는 일이 그릇된 사람의 삶은 무엇하나 바른것일 수 없습니다. 바른 삶의 뿌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행동입니다.

교법의 이해는 그 바른 믿음을 발휘해주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바른 믿음도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율지키기 역시 바른 믿음의 실천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율은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이고 편안함이고 청정입니다.

이같은 의지가 갖추어지면 우리는 발심을 할 수 있고 수행의 이력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 곧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포교는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전법포교하지 않는 불자는 부처님 밥을 혼자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탐욕의 화신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긍지를 느끼고 자신의 신행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긍지가 이웃의 삶에 법향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불자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출가 합시다. 마음의 출가를 해서 사홍서원을 이루고 참다운 불자의 바른 삶을 지켜 나갑시다. 그리하여 미혹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저 아름다운 니르바나의 언덕으로 건너 갑시다.

"내 눈과 마음은 적나라한 열림의 세계"

눈뜨기 · 마음 열기

고 은〈시인·본지 논설고문〉

사람은 그 일생 가운데서 몇 번인가 결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만나게 된다. 그 기회야말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눈을 뜨게 한다. 이것을 예로부터 개안(開眼)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화문학 '심청전'이 있다. 그 세계도 어둠으로부터 밝은 세상에의 눈뜨기라는 커다란 사건이 그려진다. '심청전'은 매우 불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점에서 불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으로 발전하는 진리인 것이다.

부처님은 바로 이런 세계와 만난 것이다. 그는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밑의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 있는 샛별과 눈이 부딪치는 순간 우주전체를 아우르는 대철리(大哲理)를 깨달은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눈과 우주의 눈이 서로 일치된 경지였다.

바로 이같은 눈뜨기의 최고 형태에 의해서 우리는 불멸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눈뜨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현실을 박차고 어디론가 떠난다. 그것을 출가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출가를 반드시 소승불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은 출가의 네 가지 종류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몸으로의 출가, 둘째 마음으로의 출가, 셋째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출가, 넷째 몸과 마음 어느 한 쪽도 불가능한 출가가 그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출가납자들처럼 출가하지 않아도 마음으로의 출가를 할 수 있다.

유마는 소승의 눈에는 재가자이나 대승의 눈에는 어느 출가자보다 더 무서운 출가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아니다. 바로 그런 눈뜬 세계야말로 진리의 세계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일을 우선 견성(見性)이라 한다. 우주의 본성을 보는 것이다. 고행자 싯다르타가 새벽 명상 끝에 본 것이 바로 그러한 본성이다.

가장 궁극적인 눈뜨기야말로 여기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된다.

놀라운 것은 그가 깨닫은 눈으로 보니 횡행한 보드가야 일대는 물론 이 세상의 혼탁한 악세(惡世) 자체가 전부 보리의 세계이며 갖가지 보화로 가득하며 장식도 궁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화엄경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세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둠 속에서 존재하는 중생의 나날이었던가.

한 수행자로부터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님으로 바뀌어진 부처님은 그 같은 눈뜬 세계를 얼마동안 혼자 비장하고 있다가 끝내 그것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정했다.

진리란 숨긴다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바로 감겨진 눈이 아니라 열린 눈이고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려야 할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뜨는 일과 마음을 여는 일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일치로서의 정신적 최고형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까지 볼 수 있는 세계, 있는 세계로부터 새로운 출가를 단행함으로써 더 높고 먼 세계에의 순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는 길의 종교이다. 어디에 고정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종교이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났다. 길에서 깨달았다. 길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끝내 길에서 이 세상을 마쳤다. 이런 부처님 일대기의 역사적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길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길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길이야말로 어느 곳 한군데 걸리지 않은 해탈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내 눈과 내 마음 그것이 곧 문이 달리지 않고 창이 달리지 않은 허허벌판과 같은 적나라한 열림의 세계아니던가.

그러나 어디로 떠난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과 어긋날 수 없다. 부처님도 몇번인가 가비라성의 귀가 사건으로 그의 교단이 더욱 풍부해졌다.

끝내 출가와 재가는 하나이다.

출가·열반 뜻 전하는 말씀

출가란 대정진 통해 번뇌 제거하는 실천
탐욕·분노·어리석음의 소멸이 바로 열반

출가 ▲삭발하는 것만으로 출가라 하지 않는다. 대정진을 일으켜 중생의 일체 번뇌를 제거하려 할 때 이를 출가라 한다.〈비화경〉

▲어떤 이가 찾아와서 출가를 원하거든 의복과 밥을 주고 4개월간 함께 살아야 하며, 만약 그를 관찰해서 제도 할 만한 자라고 보여지면 비로소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것이다.〈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 잡사〉

▲집을 나온 사람은 하천하게 생활하나니 머리를 깍고 발우를 가지고 집집마다 밥을 빈다. 혹시 천대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까닭은 훌륭한 이치를 구하기 위해서이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과 번민·슬픔과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잡아함경〉

▲집에 있으면 시끄럽고 어지러우며 또 물들고 집착하지만, 집을 나오면 고요하고 한가롭다. 집을 나온다 하더라도 속인으로서는 한결같이 순수하고 원만하고 범행이 청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잡아함경〉

▲집에 있거나 집을 나와도를 배우거나 바른 행을 행하면, 나는 그를 칭찬할 것이다. 바른 행을 행하는 자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법다움을 알기 때문이다.〈중아함경〉

열반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현세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돌아가 있다. 세상의 애착을 뛰어넘은 것이다.〈숫타니파타〉

▲존자 사리풋타는 마가다의 나라카촌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유행자 잔부카다카는 사리풋타를 이렇게 물었다.

"존자님, 열반 열반 하는데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탐욕의 소멸, 분노(증오심)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있고 말고요"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팔정도(八正道) 야말로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길입니다. 즉, 바른견해(正見), 바른생각(正思), 바른 말(正語), 바른행위(正業), 바른생활(正命), 바른노력(正精進), 바른기억(正念), 바른선정(正定)입니다. 진실로 이 길과 이 방법은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것입니다"〈상응부경전 제4권〉

경건주간에 읽을만한 책

'소설 붓다' '인도기행' '마음닦는 길' 등 유익

경건주간을 불서와 함께 보내자.

〈**소설 붓다**〉로 부처님의 생애와 함께 해보자. 경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적을 배제했으며, 국가사회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소설로 구성했다. '깨달은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틱낫한스님의 작품으로 장경각에서 펴냈다.

〈**인도기행**〉(샘터)도 불만하다. 부처님의 땅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인도인의 달관한 듯한 생사관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은이 법정스님은 인도를 다녀온 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양식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온갖 모순과 갈등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본래의 자기 모습을 되찾을 것인지, 〈**마음 닦는 길**〉이 낱낱이 지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 지눌스님의 〈**수심결(修心訣)**〉을 강건기교수(전북대·철학)가 해박한 지식과 구도자적인 안목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달았다. 불일출판사 펴냄

경전읽기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입멸한 뒤에는 내가 남겨놓은 교법과 계율이 곧 너희들의 스승"(유교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경전의 방대한 분량에 놀라고 어느 경전부터 읽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만다.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성전**〉은 '부처님의 생애' '초기경전' '대승경전' '교단의 규범' '조사어록'으로 내용을 나누고 각 경전의 가르침을 모아 묶었다. 곁에 두고 매일 읽으면 늘 출가와 열반정신을 익힐 수 있다. 〈정성운 기자〉

세속에 살아도 사홍서원 염원해야

한 생각 돌아서면 惡世도 보화궁전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홍법등

홍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홍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홍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억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일일히 풀발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홍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야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용신안: 14461호
의장등록: 38353호

홍법 장엄등 영 가 등 천도 광명등

연등 초벌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잎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초벌용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잎을 붙임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겉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겉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홍법등의 구조

■종래방식

철골 구조 조립 후 낱장으로 된 8장의 겉지를 일일이 풀칠로 붙인 후 건조

■홍법등

이중으로 겹어서 공급합니다 펼치면 팔각원통 모양의 등이 됩니다

결합

팔각원통 모양 한번의 공정으로 1분내 완성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032) 613-4027~8 팩스: (032) 665-0965

웃어야 하는 이유 ③

돈으로 살 수 없는 약

웃음이라는 약은 돈주고 살 수 없지만, 그 효과는 어떤 처방 보다도 높습니다. 때로는 웃지 않는 것 자체가 병이어서, 환자를 웃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 병자치고 잘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꾸로, 잘 웃는 사람치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한 이런 과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면, 동시에 뇌의 신경계에 의해 촉발된 전자파동이 뇌수와 다른 인체부분들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내분비선 계통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천연 안정제와 진통제를 분비하도록 뇌에 명령합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물질들 중에는 소화를 돕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동맥을 수축 이완시켜 피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비물은 고혈압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웃음만이 최상의 치료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웃음이 좋은 약이라고 하는 데에 반대할 의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웃음은 돈주고도 살 수 없는 명약임에 틀림없습니다.

인산가족이 아니면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인산죽염된장

150년을 잇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웃어야 하는 이유 ④

웃읍시다!

한 이름난 정신의학 교수가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강의실의 앞자리는 우등생 전용석이고, 뒷자리는 낙제생 전용석이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관찰해 보니,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가 말 안해도 앞자리에 앉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꼭 뒷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앞자리에 앉기 때문이요, 뒷자리에 앉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 역시 그가 뒷자리에 앉기 때문이다."

환자 치고 웃는 얼굴이 없다고 합니다. 병실에 가보면 대부분 시무룩하거나 잔뜩 찌푸린 얼굴, 몹시 화가 난 표정들입니다.
실제 환자 중에 웃는 얼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 중에 우울하거나 짜증스런 얼굴을 짓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얼굴색이 좋지 않기도 하겠지만, 게중에는 늘 찌푸려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난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읍시다!

웃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인산죽염된장

전화로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736-3171